

출판가에 경장편 소설 바람이 분다

장편의 버거움 줄이고 20~30대 독자층 공략해

문학출판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중편이라 하기엔 조금 넘치고, 장편이라 부르기에 조금 부족한 2백쪽 분량의 소설들이 '경장편'으로 분류돼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것. 보통 장편소설은 원고지 1천매 안팎의 분량이지만, 이 소설들은 대략 7백매를 넘지 않는다. 심지어 4백매를 가까스로 넘긴 경우도 있으니 말 그대로 경장편은 장편과 중편 '사이'에 걸린 소설인 셈이다.

소설 분량 제한하는 관행 돌파해

출판사들이 경장편 소설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이룸이 《열정의 습관》(전경린)을 펴내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여성들이 원하는 성과 사랑'을 주제로 《문화일보》에 연재했던 이 소설은 "남성 작가들이 보여주는 일방적인 욕구의 분출과 관념화된 성에 대한 신선한 반격과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화제작. 그 뒤를 이어 이마고가 《이바나》(배수아)와 《중얼거리다》(정영문)를 펴내며 본격적으로 경장편 시장에 뛰어들었고, 월드컵이 끝나면 책세상과 열림원도 속속 가세할 전망이다.

번역소설에서도 경장편 형식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문학은 <해외 현대 소설선> 시리즈를 통해 실험성이 돋보이는 유럽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소개해 젊은 독자층 공략에 나섰다. 유재혁 단행본팀장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고답적인 틀을 깨지 못하는 국내 작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다. 독자들에게 기존 소설의 판형이나 두께 때문에 느끼는 무게감을 덜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4권이 출간됐는데, 연말까지 10권을 채울 예정이다.

열림원도 최근 문고판을 떠올리게 하는 <이삭줍기> 시리즈를 선보이며 '비주류 장르의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시리즈는 기존의 고전 작품 시리즈에서 제외됐던 제3세계 문학작품을 소개해 차별화를 꾀했는데, 앞으로 동양의 고전 작품들과 사상서들도 아우를 예정이다.

경장편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문학출판에서는 소설집이나 장편소설 출간이 일반적이었다. 이마고의 윤수경 편집장은 "작가들 입장에선 이런 출판관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예지에 발표했다던 단편들을 하나둘 모아서 소설집을 묶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분량의 중압감 때문에 장편소설 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중편 분량으로 주제를 심화시키다 보면 분량 제한에 걸리기 일수였다"고 말한다. 결국 문제는 작품의 질이 아니라 소설 분량에 따라 출간 여부를 결정짓는 비합리적인 관행에 있다.

책세상의 김광식 주장은 "문학출판사들이 그 동안 순수문학 독자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결국 이것이 순수문학의 침체를 낳았다. 이제 분량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기획과 작품으로 독자들을 찾아나서야 할 때다. 또한 기존에 출간됐던 경장편 시리즈들이 실패한 요인도 반성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장은 경장편이라는 용어는 시장을 축소시키는 느낌이 있다며, '짧은 장편'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읽는' 문학에서 '보는' 문학으로 변화 이끌어

경장편 소설들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장편소설을 버거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과감히 책의 두께를 줄였다는 것. 다음은



주요 독자층인 20~30대, 즉 비주얼 이미지에 친숙한 독자들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 요소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마고의 《이바나》와 《중얼거리다》는 하드커버를 밖으로 꺼내는 독특한 표지와 트레팔지 위에 펼쳐놓은, 흑백 영화 필름을 연상시키는 듯한 작가소개가 인상적이다. 이룸의 《열정의 습관》은 표지와 내지의 일체감을 살리기 위해 본문에도 과감히 비주얼 이미지를 곁들였다. 이런 변화에 대해 열림원 이영희 주장은 "읽는 문학에서 보는 문학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시리즈라 해도 하나의 패턴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번째는 문예지를 통해 눈인사한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들이 신작이라는 점이다.

경장편 시장은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룸은 오정희, 이승우 등 인기 작가들의 신작을 확보했고, 이마고는 올해 안으로 다섯편 정도를 보낼 계획이다. 문학출판에 출사표를 던지며 의욕적으로 경장편 소설들을 준비중인 책세상과 <시설(詩說)>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인 열림원은 출간시기를 놓고 고민중이다. 월드컵 이후나 9월경이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장편 소설은 작가나 출판사 모두에게 틈새장르다.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침체된 문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자와 순수문학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옥순 기자